

시간의 틈 사이 남아있던, 그의 진심을 전합니다

노회찬의 말을 평사노트

노회찬재단 엮음

무기력한 시대일수록 냉소가 지배합니다.
그 냉소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바로 말과 글입니다.
세상을 바꿀 권력이나 자본이 없다고 여기는가.
우리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과 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노회찬 외,
「책을 펴내며: 무기력과 냉소에 맞서는 용기」,
<생각해봤어?> (웅진지식하우스, 2015)

무기력한 시대인수록 냉소가 지배합니다. 그 냉소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열라 끓입니다. 세상을 바꿀 리더십이나 자본이 없다고 떠기느라. 우리는 씨정히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라 끓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썩은 정치판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50년 동안 삼겹살을
같은 불판 위에서 구워 먹으면
고기가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KBS 심야토론,
‘급변하는 민심 어떻게 볼 것인가’
(2004년 3월 20일)

썩은 정치판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50년 동안 심정심을 같은 불판 위에서 구워 먹으면 고기가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만 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전화기,
다른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제343회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2016년 7월 4일)

사랑부는 또 이렇게합니다. 사랑부
 를 상징하는 '정의의 씨앗' 나찌
 는 한 도어는 저쪽, 다른 한
 도어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
 지만 진짜 부자감사가 진짜 두
 품으로 씨앗들이 평생 밭에도 못
 밭 돈을 밭어들이는 정관여우의
 밭정에서 라면 밭 앞에 바니은
 증명합니다? 만 밭만 증명하
 는입니다.

싸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
늘날 세한일곡 '정의의 씨심'은
은 한 도어는 전하기, 다른 한
도어는 돈다움을 들고 있음을 밝힌
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 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국회를 떠나며」

(2013년 2월 14일)

저는 오늘 배방영의 딸로 10
 개월 만에 금희의 영자를 내려놓
 고 다시 그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기후 임신파임 사건으로
 배방영 딸로움을 잃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노영구 생계동
 우리자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한
 줄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한 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
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05(1)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새벽 4시와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점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5.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수락연설

(2012년 10월 21일)

05(1)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세
월 4시와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전부터 거의
한석이 되어 강남의 여러 횡단간
에서 5.60에 아구어니들을 다 내
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름
아는 사납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아들딸과 같은 수방을 자각하는
이 그 빈당을 드나들지만, 그 빈
당이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평
비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해마다
때부터 미움이 있었지만 그 미움
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껴버립니다. 그냥 채도
하는 미화원인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원 받는 미화원들이야
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 재하되
그 또 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05(2)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수락연설

(2012년 10월 21일)

저는 다산로에게 묻습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 같은
 은 사납들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까. 그들의 소이 땀은 곳에 있었
 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
 이 라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이 땀을 낼 수 있고 소이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땅을 떠나
 보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바로 오늘 첫 행사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사를 가진 것은 늘 여러분들을
직장동료로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분들이, 저희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있고,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대변해야 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원래 쓰던, 여러분의 노조가 쓰던 공간이
잘 유지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혹 일이 잘 안되면, 저희들 사무실 같이 씁시다.

국회 청소노동자와의 오찬 간담회

(2016년 5월 30일)

그런 점에서 20세 국제가 시작
 되는 바로 오늘 첫 행사로써 세
 니보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사
 를 가진 것은 늘 세니보들을 각
 장동료로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세니보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분들이,
 저희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있
 고,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세
 변해야 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있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비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음이 사실은 아니겠 바라고, 씨
너분들이 원래 쓰신, 씨너분들의
노조가 쓰신 공간이 잘 유지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노조를 하는 것이요.혹 일이 잘
만되면, 저희들 사무실 같이 씬
시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삶은 한번 밖에 없죠.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야 해요. 삶 자체를 소중하게,
무겁게, 동시에 낙관적으로 즐겁게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만 잘사는 삶이면 되나요.
개인의 삶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다들 형편이 어려운데 나만 잘 산다고 과연
내가 기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런 점에서 저는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고,
이것이 제 가치관인 휴머니즘의 바탕입니다.

경향신문 인터뷰

(2011년 1월 17일)

누구에게나 그렇듯 삶은 한번의
 방류에 불과. 일어나 소중한지를
 느껴야 해. 삶 자체를 소중하
 게, 무겁게, 동시에 낙관적으로
 즐겁게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하지만 나만 잘사는
 삶이면 되나. 개인의 삶이 우
 선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

그렇지만 다들 행운이 어려운데
나만 잘 산다고 라면 내가 기쁜
것이야. 그렇지 않죠. 그런 전
에서 저는 더없이 사는 삶을 꿈
꾸고, 이것이 제 가치관인 휴어
리즘의 바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야 되는가.
 사회적 존재로 처음 출발할 때가 휴머니즘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다른 것은 다 왔다가도 가고,
 마치 계절에 따라서 옷이 바뀌는 것처럼 달라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거는 휴머니즘이고요.

인간을 실망시키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
 또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 오히려 그것까지 놓아버리게 되면
 겁이 나는 거죠. 내가 그걸 놓아버리게 될까 겁나서 죽어도
 그건 쥐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 할까봐 그것만은 안 놓으려고.

변영주 감독과의 인터뷰

(<진보의 재탄생: 노회찬과의 대화>, 꾸리에, 2010, 141쪽)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
 큰 마음과 자비로 세상을 바라
 봐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나
 가야 되는가. 사해각 포로로
 처음 출생할 때가 휴머니즘이
 있죠. 지금도 비정히 다른 것은
 다 왔다가도 가고, 마치 계절
 이 따라서 옷이 바뀌는 것처럼

알라지기도 하지만, 씨겅히 1번
하지 않고 잇는 기는 휴어니즘이
코르. 인간을 신망시키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 또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 없
이는 못 산다는 생각. 오히려 그
것까지 좋아하게 되면 겁이
나는 기조.

내가 그림 놓아드리게 될까 겁
나서 죽어도 그림 쥐고 있는 거예요.
예. 두려운 거요. 풍채의 미움을
찾지 못 했는가와 그것만을 만 놓
으려고.

한국 사회는 두 가지 위기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방식과 세월호 방식입니다.

우리는 가장 약한 사람부터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세월호 방식의 기조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부터
먼저 구하는 타이타닉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3당 원내대표 공동주최

‘조선업 구조조정 대토론회’ 인사말

(2016년 6월 9일)

한글 사제는 두 가지 의미 때문
방향이 있습니다. 리미티ング
방식과 비유적으로 방식입니다. 우
리는 가장 약한 사람부터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비유적으로 방식의
기조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부터 먼저 구하는 리미티ン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당이 마음으로 함께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법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 법안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진상 조사는 누군가의
 이해득실로 따질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는 여와 야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여야 모두가 함께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야3당 원내대표 공동주최
‘조선업 구조조정 대토론회’ 인사말
 (2016년 6월 9일)

모든 일이 마음으로 끝까지 통라시
 켜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내지
 아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월호 특종조사위원회 활동 보
 장 방안입니다. 동조 의원 씨리
 부. 세월호 진실 조사는 누군가
 의 이해득실로 따져 쟁점이 아니
 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는 씨와
 야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20세 국제에서 네
월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위
가쪽의 비움을 단행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이룩한채 주기
위해서라도, 네월로 친목의 진심
을 귀감하는 데 써야 모두가 고통
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
립니다.

평화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오지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빠르고
편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누구도, 보수라 할지라도 전쟁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보수가 아닙니다. 가짜지요.
극우라면 모를까 건강한 보수라면 절대 전쟁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든 진보든 평화와 안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쟁도 불사하자는 주장은 나라를 망가뜨리자는 것일 뿐
보수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평화란 의견이 갈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회찬,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창비, 2018), 84-85쪽

평화란 이대서 뭘 얻어지는 것
 이 아닙니다. 저 땅에서 오지요.
 지닌 모든 사랑을 기쁘게 나누지만
 바쁘고 험한 지름길은 없습니
 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저는 그 누구도, 보수와 같은
 사람도 전쟁을 부추기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보수
 가 아닙니다. 가짜지요.

그러나 모를까 긴장한 보수라
면 잘못 전쟁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는 진보는 평화
와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
쟁도 불사하자는 주장을 나라를
망가뜨리자는 것인 뿐 보수는
이름으로 뽐낼 수 있는 것이 아
닙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합니다. 평화란 의견이 갈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꿈입니다.

노동이 존중될 때 선진복지국가는 그만큼
빨리 실현될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

창원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개소식

(2016년 3월 11일)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비행기꿈이 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꿈입니다.

노동이 존중될 때

신진복지국가는 그만큼 빨리

실현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누구든 나서서 더 많은 복지, 경제민주화라는 약을 주겠노라고 경쟁하는 양상입니다.

누굴 믿어야 하나요?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처럼 일단 병은 고칠 생각 않고 약만 많이 주겠다는 의사는 다 가짜입니다. 약조차 안주는 지금 의사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도대체 자영업자의 80%이상이 적자를 못 면하고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차별받는 비정규직인 현실을 바꾸지 않고 무슨 병을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좋은 노동과 함께 하지 않는 복지는 다 가짜라고 봐도 됩니다.

‘2012년 우리가 뽑아야 할 12번째 인물’ 대담회
(2012년 6월 2일)

비통영생기가 다가온수록 누구는
 나서서 더 방을 북지,
 쟁쟁히주화라는 야를 주깁니다라고
 쟁쟁하는 양생입니다.

누를 믿어야 하나? 병 주고
 약 주다는 말처럼 인간 병은
 고쳐 생각 않고 약만 병이 주깁
 다는 의사는 다 가짜입니다.
 약조치 만주는 지금 의사로다는

낮지 않느냐는 생각도 위험하습니
다. 도매매 자영업자의 80%이상이
직자를 못 만들고 취업자의
필요한 이성이 줄어들면서 비정규직
인 현상을 바가지 않고 무슨
병을 고치겠냐는 것이니까?

좋은 노동과 함께 하지 않는 복
지는 다 가짜라고 봐도 됩니다.

그 후 10년에 걸친 천신만고 끝에 진보정당을 만든 것도,
 두 차례나 국회의원이 된 것도, 국회의원직 박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삼성X파일을 공개한 것도, 평생 한 우물만
 판 것도 모두 한 가지 목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어디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동자 서민의 땀과 눈물과 애환이 서려 있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20대 총선 창원 출마 기자회견

(2016년 2월 1일)

그 후 10년에 걸친 치신안고 끝에
 이 진보정당을 만든 것도,
 두 차례나 국회의원이 된 것도,
 국회의원이자 법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심치않음을 공개한 것도,
 평생 한 우물만 파는 것도 모두
 한 가지 목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든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어디냐는 물
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동과 씨름의 땀과 눈물과
애환이 서려 있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및 각종 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한 조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안을 사회적으로 공감시키고 그 해결을 앞장서서 이끌어 온 단체인 반올림과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KTX 승무원들 역시 10여 년의 복직 투쟁을 마감하고 180여 명이 코레일 사원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만 믿고 일해 왔는데 자회사로 옮기라는 지시를 듣고 싸움을 시작한 지 12년 만입니다.

오랜 기간 투쟁해 온 KTX 승무원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의당 상무위원회 서면 발언
(2018년 7월 23일)

삼성전과 등 반도체 사업장에서
 병행운영 및 각종 장려금에 관한
 노동자들에 대한 조정 합의가 이
 취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안을 사
 해장으로 공인시키고 그 해장을
 앞장서서 이끌어 온 한체인 반
 유진과 수방은 보듬게 감사의 말
 씬을 드립니다.

또한 KTX 승무원들 역시 10여
년의 복직 투쟁을 거쳤고
180여 명이 코레일 사원으로 인
사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후 정제
직으로 전환되었다는 말만 믿고
인해 왔는데 자회사로 옮기라는
지시를 듣고 싸움을 시작한 지
12년 만입니다.

요즘 기쁜 마음으로 온 KTX 승객
님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용산참사 시국미사에서 마지막 성가로
<그날이 오면>을 불렀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21년 전 결혼식 때 웨딩마치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이종걸군이 피아노반주를 맡았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날은 오지 않고 있네요.

2009년 11월 10일 트위터

용산참사 시국기사에서 마지막
 생각로 <그날이 언제>을 불렀습
 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입니다. 2년 전 결혼식 때
 웨딩마치로 이 곡을 선택했습니
 다. 이종필군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날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영결식 추도사를 하면서 고인들에게
함께 숨진 고 김남훈 경사를 하늘나라에서 만나거든
따뜻하게 안아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역시 무모한 진입명령의 희생자이고
무허가건물 옥탑방에서 기거하던 서민이었습니다.

2010년 1월 9일 트위터

용산참사 병거참사 추모사를 하신
 서 고인들에게 감사드리고
 김남훈 장사를 하늘나라에서
 만나게는 따뜻하게 만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역시 무모한
 진인상장영의 희생자이고 무허가
 건물 옥탑방에서 기거하던 서민
 이었습니다.

세속화는 대개 부정적으로 쓰이는데요. 제가 말하는 세속화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뜻입니다.

진보가 세상 속이 아닌 주변에 있지 않았느냐는
 성찰 속에서 ‘민생의 한복판에 뛰어들자’
 ‘국민의 상식 수준으로 달려가자’는 겁니다.
 ‘타락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진보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해요.
 노동자, 서민에게 지지를 못 받아요. 더 노동자,
 서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대변하도록 노력해야죠.

「노회찬, "세상 주변에 머문 진보, 세속화가 필요하다"」,
 <오마이뉴스> (2014년 11월 29일)

비속화는 세기 부장장으로 쓰이는
 데다. 제아 말하는 비속화는
 ‘비상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뜻
 입니다. 전로가 비상 속이 아닌
 주위에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은
 속에서 ‘비생의 한복판에 뛰어들자’
 ‘국민의 생사 수준으로 달려
 가자’는 겁니다. ‘전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해. 노동자, 시민에게
지지를 못 받아. 더 노동자,
시민 쪽으로 들어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세련하도록
노력해야죠.

3월 8일을 명절처럼 보내는 세계 각국의 관례대로 축하와
다짐과 반성의 마음을 담아 장미꽃 한 송이를 보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3월 8일 무렵에는 꽃값이 세배나 오르길
바랍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알아도 세계 여성의 날은 배운 바 없다는
제 조카와 같은 대학생이 더 이상 나오기 않기를 희망합니다.

성평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여성단체들이 바라는 바대로
3월 8일이 국가 기념일로 조속히 지정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듯
적어도 이 날만큼은 우리 모두가 성평등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다시 생각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제95회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장미꽃과 함께 보낸 편지글
(2005년 3월 8일)

3월 8일을 법정절일로 보내는 세
 계 각국의 관례대로 축하와 다짐
 과 여성의 기쁨을 담아 생기발
 한 송이를 보냅니다. 다른 나라들
 처럼 3월 8일 무렵에는 꽃값이
 비싸나 조금 저렴하다. 일본엔
 리본세이는 앞마당 세상에 여성의
 날은 베풀어 바깥에는 세 조각과
 같은 세곡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
 기를 희망합니다. 상충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씨성장체들이 바라
는 바대로 3월 8일이 국가 기념
일로 조속히 지정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날이 부모님의 은
혜를 다시 한 번 생중하듯 각이
도 이 날만큼은 우리 모두가 상생
등과 씨성의 정치개혁화를 다시
생중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切望합니다. 세게 씨성의
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먼저 선배세대로서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자세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것은 하기 나름이라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게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 친구들 중 굉장히 성공한 친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신이 제일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모르고 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자신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이라는 물음에 대해 (<‘自由人’ 인터뷰>, 2011.8.18.)

먼저 신생아때부터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자세로 삶을 살
 아야만 좋겠습니다. 후회없이 받
 아들이지 말고, 모든 것을 하거나
 옳으라는 자세로 살아야만 좋겠습
 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게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직업
 으로 삼아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하
나 친구를 중 앙중히 성공한 친구
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회담을 생중하더
나 자신이 제일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모르고 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
지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자신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만 18세부터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면 중앙선관위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은 될 수 있는데 선관위가 주관하는 투표는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 18세에 실제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이 되면 월급 받고, 월급 받으면
세금 냅니다. 그런데 왜 투표권은 안 주면서 세금은 받습니까.

‘선거권 연령 18세가 되면 고등학교가 정치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정치 이야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들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9세 미만에게는 보여주기 부끄러운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18세선거권국민연대’ 출범식 축사

(2017년 1월 19일)

우리나라 공무원은 만 18세부터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이면 중
 앙선거권이 적용도 될 수 있습니
 다. 중·앙선거권이 적용은 될 수
 있는데 선거권이 주관하는 투표
 는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
 까.

만 18세에 실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공무원이 되면 월급 받고, 월급 받으니까 세금 냅니다. 그런데 세 소득은 만 주에서 세금을 받습니까. '선거선 임명 18세가 되면 고등공직에 정치권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고등공직에서도 정치 이야 끊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들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1941 미얀마에서는 보석주
기 부끄러운 정치를 계속 하겠사
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을

채워 나가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키워 나가는 것은 더 많은 민심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민심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약속한 바를 실천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정의당 3·4기 지도부 아취임식 축사

(2017년 7월 13일)

평등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것입니다.
 다. 그 그것은 '인' 그것입니다. 무
 아를 채웁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
 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믿음을 채
 워 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것을 키워 나가는 것은 더 많은
 믿음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믿은
 이야기로 우리가 앞으로 야망하는
 바를 실천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다.

시인 안도현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오는 나는 나에게 묻습니다.

“너를 거부한 사람들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는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희망이 된 적이 있느냐.”

<노회찬의 난중일기>

(2008년 4월 18일)

사인 만드려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떤재료를 공짜로 빌려 주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
 도 뜨거운 사념이 있느냐.”

오늘 나는 나에게 웃습니다.

“너를 기부한 사념들을 냉정하게
 생략하지 마라. 너는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해방이 된 적이
 있느냐.”

제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노회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당대표의 권위가 아니라 국민의 밥상을 차릴 ‘요리사의 칼’입니다.

노회찬이 요리하면 더 맛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국민의 밥상에서 삼시세끼를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능하고 유연하며 유쾌한 진보 정치가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분들의 가슴속에 확장되는 데 이 노회찬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출마선언문(2015년 6월 18일)

제가 더 방법이 기억하는 수 있도록
이 노혜선에게 잊는 기쁨을 주시
시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당세포의 귀신이 아니라 국민의
바탕을 치는 '민사의 칼'이
다.

노혜선이 민사하면 더 맞았다는
것을 꼭 보게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국민의 바탕에서 생시

비끼를 끊임없이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연하고 유연하게
유쾌한 진로 정치가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확장되는 데 이 노력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여기까지 함께 온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칙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걷는 길동무들이라 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정의당 대표 퇴임사

(2013년 7월 21일)

그동안 씨리보로 부족했던 저를
 믿고 씨리까지 함께 온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후강물이 이두근 뱀강을
 강을 때 가장 소중한 사냥은
 함께 도을 정과 그 강을 걷는
 강동무들이라 합니다. 당연동지
 씨리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은 이제야 15척 담 안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신록의 여름이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변화의 방향이 발전적일 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청주교도소 수감생활 시절

부모님께 부친 편지 (1991년 4월 23일)

저녁은 이제야 15초 남 안에서
완전히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신록의 씨름이 조금
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생동감
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변화의
방향성이 불확실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철부지의 철없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치부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불씨를 던졌을 뿐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인화물질로 가득 찬 화약고였습니다.

바로 불평등, 불공정이라는 인화물질 말입니다.

국회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2017년 2월 9일)

정우라가 돈도 신라국이라고 알았을 때 수방은 사납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우지의 청우는 주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고 있는 세한민국의 강나라한 치부에 세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과 정유라
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불씨를 던졌을 뿐입니다.

이미 비하인드극은 인화불장로 가
등 채로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불당증, 불광증이라는
인화불장입니다.

분노는 짧지만 희망은 깁니다.

분노는 뜨겁지만 물도 끓일 수 없습니다.

희망은 종유석입니다.

흘린 땀과 눈물이 하루하루 만들어 가는

돌기둥입니다. 벚들이여 희망의 하루 만드소서!

2009년 12월 1일 트위터

부끄는 짝이지만 희망은 갑니다.

부끄는 뜨겁지만 불도 끌을 수
있습니다. 희망은 풍요스럽습니다.

흔들린 땀과 눈물이 하구하구

만들어 가는 돌기둥입니다.

벚들이씨 희망의 하구 만드소서!

순간순간을 보면 역사가 후퇴할 때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지그재그로 발전하는 것이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낙관주의! 저는 늘 이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조건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물방울이 끝내 바위를 뚫는 자연의 섭리를 되새깁니다.

힘냅시다^^

2009년 12월 14일 트위터

순간순간을 보낸 역사야 후회할
 때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지고
 재고로 반복하는 것이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순간의
 의! 저는 늘 이 바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조건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물방울이
 끝내 바위를 뚫는 자연의 섭리
 를 되새깁니다. 힘낼시다^^

나는 다시 꿈을 꿉니다. 대학 서열과 학력 차별이 없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 지방에서
 태어나도 그곳에서 교육받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나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 인터넷 접속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노회찬, 「우리들의 겨울은 따뜻했다-다시, 꿈꾸기 위하여」,
<진보의 재탄생> (꾸리에, 2010)

나는 다시 꿈을 꿉니다. 비록
 시절과 국적과 인종이 없고 누구
 나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
 는 나라, 지방에서 어디나도 그
 곳에서 교육받고 취직하고 결혼하
 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아무 불
 편함이 없는 나라, 비정규직이
 라는 이유로 인권을 받지 않는
 나라, 인터넷 검열이 국민의 기
 분으로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이 오직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꿈을 현실이 됩니다.

이 꿈을 놓지 못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크기 때문도 아니고 그 꿈이 너무 아름다워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꿈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그 꿈은 나의 곁에, 우리 모두의 곁에 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노회찬, 「나는 꿈을 꿉니다」,
<노회찬의 약속> (레디앙, 2010)

이 꿈을 놓지 못하는 것은 현상이
 능성이 되기 때문도 아니고 그 꿈이
 너무 아름다워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꿈 이외에는
 세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
 야 합니다. 이미 그 꿈은 나의
 결에, 우리 모두의 결에 와 있습
 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의 실상은
 우리의 몫입니다.

본 책은 제574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노회찬재단이 진행했던 <노회찬과 한글>
클라우드 펀딩 참여자분들께 전하는
작지만, 소중한 선물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생각이 담긴 말글을
그분의 글씨(노회찬체)를 통해
가슴에 보다 오랫동안 간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